천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 팩스 857-8549

부속기관: 꿀벌유치원 857-8545 / 요셉어린이집 857-8546

주임신부	백승준	시몬
보좌신부	정 혁	요셉 (청년부)
	강봉묵	마티아 (유·초·중·고등부)
전교수녀	윤옥주	율리아 (원장)
	이민자	미란다 (중·고등부/청년부)
	최상순	수산나 (유·초등부)
꿀벌유치원	장종수	마리나
요셉어린이집	박화자	글라라
총회장	최석준	마르코 010-5715-0392
연령회 회장	우성식	바오로 010-2899-4654

◉ 祝 세례식 - 3월 31일 교중 미사 중

구/반	성명	세례명	구/반	성명	세례명
12/2	김필남	마 리 아	22/1	강동찬	안 셀 모
17/1	신명자	요 안 나	23/1	이치헌	바 오 로
17/2	신순옥	베로니카			

◉ 모 임

단 체 명	일 시	장 소
성체분배자회	3월 31일(일) 교중미사 후	성체조배실
제대헌화회	4월 02일(화) 10:30	2교실
자녀를 위한 기도	4월 05일(금) 19:40	1교실
성모성심회	4월 06일(토) 17:30	강 당
위령봉사회	4월 07일(일) 11:40	강 당
M.E.	4월 07일(일) 11:50	6교실

◉ 첫 토요일 성모 신심 미사

- 일 시 : 4월 13일(토) / 오전 6:30
- 미사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도움이신마리아' 장엄 강복 및 성수 예식을 합니다.

◉ 견진성사 교육 및 전신자 신앙 재교육 안내

- 교육기간 : 4월 12일(금)~5월 31일(금)
  - 매주 금요일, 오후 7시40분(8주차 교육)
- 견진신청 접수기간 : 4월 7일(일), 사무실
- 2023년 12월말까지 세례받으신 분(15세 이상)
- 견진성사 예식 총연습 : 6월 7일(금) 20:00
- 견진성사 : 6월 8일(토) 오전11시, 대성전

* E-마트 마일리지 적립금 안내 *

본당 신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로 모은 E마트 마일리지 적립금이 어려운 이웃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대 위 수거함)**

※ 2개월이 경과한 영수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알 림

- 살레시오와 꿈(OUM) 후원미사 4월1일(월), 오전10시
- 4월 병자 영성체는 4월12일(금)에 있습니다.
- 4월에는 성시간 및 성체강복이 없습니다.

◉ 예비신자 교리반 신청

- 예비신자 교리반 첫 만남 : 4월7일(일), 09:30
- 주일반(일, 오전 9시 30분)
- 사무실에서 신청받습니다.

◉ 묵주기도 10억단 바치기 운동

- 지향 : 서울 세계청년대회 준비
- 묵주기도 10단에 묵주알 1개를 봉헌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봉헌함은 성전 입구 우측에 있습니다.

◉ 다음 주일(4/07) 국수잔치 및 청소 담당

국수잔치	6구역	청 소	2구역

◉ 우리들의 정성(3월 20일 ~ 26일)

- 교 무 금 ····· 7,635,000원
- 주일헌금 ····· 5,249,000원
- 사순절 이웃돕기 특별헌금 ···· 2,231,200원
- 감사헌금 김상우10만원 김이용10만원 최순애10만원 최대옥 5만원 이형순 5만원 강정자10만원 김재금20만원 지헌주 5만원 조OO 5만원 박정순10만원 정영자 1만원 국수잔치15구역 5만원

◉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월 일	해 설	복 사		독 서	
3/31	구민서	오성환	김영균	김덕영	정연희
4/07	황원선	조홍한	김영균	윤상기	손정주

◉ 성체 분배자 명단

월 일	토요주일	06:30	10:30		12:00
3/31	-	박형순	박용환	오광운	-
4/07	장익근	장인홍	하재민	박형순	김광수

부활대축일 성가곡	
	♪입 당 : 예수 부활하셨네(130) ♪화답송 : 우리에게 향하신
	♪예물준비 : 봉헌합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210), 나를 받으옵소서
	♪영 성 체 : 생명의 양식(166), 사랑의 신비, 천사의 양식(188)
	♪파 견 :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

82. 그러나 다른 생명체들이 인간의 자의적인 지배 아래에 놓이는 단순한 대상이라고 여겨져야만 한다는 생각도 그릇된 것일 수 있습니다. 자연을 단지 이윤과 이익의 대상으로만 여긴다면, 이는 사회에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강자의 자의를 옹하하는 관점은 대부분의 인류에게 엄청난 불평등, 불의, 폭력을 낳습니다. 이 경우에 자원은 먼저 차지하거나 가장 힘이 센 자의 것이 되어 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곧 승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조화, 정의, 형제애, 평화의 이상에 크게 어긋나느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대의 세력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83. 이 세상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느님의 충만 안에 놓여 있습니다. 이 충만은 모든 보편적 성숙의 중심이 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다른 피조물들에 대한 인간의 모든 무책임한 전제적 지배에 대한 또 다른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피조물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품으시고 비추시는 초월적 충만 안에서 우리와 더불어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공동의 도착점, 곧 하느님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성과 사랑이 부여된 인간은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이끌려 모든 피조물을 그들의 창조주께 인도하라는 부르심을 받습니다.

Ⅳ. 창조의 조화 안에서 모든 피조물이 전하는 메시지

84. 인간이 하느님의 모습을 닮았다고 내세울 때에 모든 피조물이 각기 기능이 있고 그 어느 것도 필요 없지 않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질세계 전체는 하느님의 사랑, 곧 우리에 대한 무한한 자애를 나타냅니다. 흙과 물과 산, 이 모든 것으로 하느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지십니다. 하느님과 우리의 우정의 역사는 언제나 매우 개인적인 의미를 지니는 특정 장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추억이 깃든 장소를 마음에 담아 둡니다. 산속에서 성장하거나 어릴 때 냇가에 앉아 물을 마셔 본 이들, 또는 동네 공터에서 놀아 본 이들이 그 추억의 장소로 돌아가면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을 되찾으라는 부름을 받았다고 느끼게 됩니다.